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 선 넘는 언행에 뿔난 트럼프 참모들

행정부 경제 정책·핵심 내각 구성 개입...트럼프 측근 등 ‘경악’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차기 행정부 구성에 갈수록 개입하면서 일부 트럼프 참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핵심 내각 자리를 두고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자은행

‘캐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부 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머스크는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

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러트닉 지지자 이런 상황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우군들은 선거 기간 머스크의 재정적, 정치적 후원에 고마웠으나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트럼프 후원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트럼프 주변 인사 몇 명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 장관 결정을 아직 저울질하는 가운데 머스크가 자기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밀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보직을 맡게 되는 인사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

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머스크의 공개 지지는 트럼프 당선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를 만들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선 캠프 당직자들과 접촉하는 한 인사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지 않다”며 머스크의 발언은 그가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서 선을 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에 1억달러를 넘겨 지원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곁에 있으며 외국 정상과 통화와 정권 인수팀 회의에 참석하고, 트럼프 당선인

의 마라라고 골프장에서 트럼프 손주들과 함께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과 러트닉과 함께 전날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대회를 관람하는 등 트럼프와 여전히 가까운 관계로 보인다.
 머스크는 또 전날 엑스에서 하비에트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좋은 행동이다”(Good move)라고 적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공약과 상반되는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맞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키이우 독립 광장에서 한 여성이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허용 러시아 “3차 대전 이어질 수도”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에이태컴스 허용과 관련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고,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사스 위원장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

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숙원이던 에이태컴스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컴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수일 내로 첫 장거리 타격을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런 움직임에 크렘린궁의 언급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왔다”면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했던 경고를 재차 시사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월 에이태컴스로 크렘린도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때는 미국의 허가가 없던 시점이지만 크렘린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본토라고는 할 수 없다.
 그간 미국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으로 고속기동포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 등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에이태컴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폭격에 레바논 헤즈볼라 수석대변인 사망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무함마드 아피프 수석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의 범아랍권 정당 바르당 사무실에 있던 아피프 대변인이 공습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이스라엘군이 이날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인 베이루트 남부 교외가 아닌 시내 중심부 라스알나바아 지역을 공습했다면서 이례적으로 사전 대피 경고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가를 공습한 건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여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지역에서 정교한 정밀폭격을 가해 테러범 무함마드 아피프를 제거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아피프 대변인이 헤즈볼라의 ‘선전전 수장’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등 “이스라엘국에 반하는 헤즈볼라의 테러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피프 대변인은 헤즈볼라 자체 방송인 알마나르 TV를 수년간 관리하다 대변인직에 올랐고, 올해 9월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시작된 이후 대외노출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사전에 경고 없이 공습이 이뤄진 까닭에 아피프 대변인을 겨냥한 공습 현장에서는 총 4명이 숨지고 어린이 두 명이 포함해 14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2일에도 아피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점에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를 공습했고, 이로 인해 기자회견이 중단된 바 있다. /연합뉴스

“타이태닉호 승객 700명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선장이 선물받았던 금시계 27억원에 낙찰

1912년 침몰한 타이태닉호 승객 700여명을 구했던 여객선 선장이 생존자로부터 선물 받은 금시계가 경매에서 27억원에 팔렸다.
 AP통신은 타이태닉호 승객을 구했던 RMS 카르파티아호의 아서 로스트론 선장이 생존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티파니의 18K 회중시계가 경매에서 156만파운드(약 27억원)에 낙찰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시계는 타이태닉 침몰로 숨진 미국 재계 거물 존 제이컵 애스터의 부인 등 3명의 생존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로스트론 선장에 선물한 것이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메들린 애스터는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있는 저택에서 로스트론 선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시계를 선물했다.
 시계에는 생존자인 메들린 애스터와 존 B. 세이어 부인, 조지 D. 워더너 부인의 이름과 함께

‘세 명 생존자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로스트론 선장은 1912년 4월 15일 새벽 타이태닉호의 조난 신고를 듣고 지중해로 향하던 카르파티아호를 돌려 구명보트 20여척에 타고 있던 700여명의 승객을 구조했다.
 그날의 행동으로 로스트론 선장은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월리엄 하워드 태프트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의회 훈장을 받았으며 조지 5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